



학생들과 함께한 26년,

## 일본어교육의 고전 만든 내력을 찾아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에 있어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출판사라면,  
더구나 학습교재를 담당한다면 더욱 그렇다. 시사일본어사를 얘기하려는 것이다.  
어학교육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런 브랜드 밸류와는 어울리지 않게  
원남동 평범한 골목 뒤켠에 자리한 시사일본어사를 찾아가 봤다.



고등학교에 가면 제2외국어를 선택해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주로 일본어와 중국어 배우기에 몰린다. 나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단시간에 오갈 수 있다는 점과, 국내로 하루가 다르게 유입돼 오고 있는 그들 문화를 생각하면 배우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다.

요즘은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가 수출돼 '한국어 열풍'을 불러오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문화는 이미 우리네 일상에 오래전부터 깊이 스며있다. 중학생들 중에서도 '망가'를 읽겠다고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듯, 다른 나라의 신선하고 재미있는 문화를 더 가까이 접하기 위해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처럼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저마다의 동기가 있다. 그러면 어떤 교재를 구입해야 하는가? 한뼘쯤 고민해 본 사람은 '시사'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전통 있는 출판사의 이름이 새겨진 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수준 있고 적중률 높은, 이른바 '좋은 교재'를 쓰고 있다는 자부심이기도 하다.

시사일본어사는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반경의 영향력을 자랑한다. 《新일본어 첫걸음》《일본어 작문의 급소 190》《분카재패니즈》《더베스트 일본어회화》등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책들만 봐도 알 수 있다. 단순히 지식전달의 목적을 넘어, 수준과 취향을 고려하다보니 자연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재가 됐다.

"시대가 변하니 학생 취향도 많이 변하는 게 당연해요. 예전보다 높아진 수준도 그렇고요. 그것에 부합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를 출판하는 모든 출판사가 그렇겠

지만 특히 외국어 학습교재는 해당 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해야 하거든요. 요즘에는 외국어교재를 만드는 출판사가 늘어나다보니 보다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은경 편집장은 어학교재 출판사야말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이는 세계화 시대에 출판사가 맡은 역할이라는 것이다.

창업 이래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교재를 출판한 지도 스무 해가 훌쩍 넘었다. 1977년 이후 시사일본어학원 종로점 개원을 시작으로 강남, 부산 등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 외국어 교육의 선두 업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온 계기가 됐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국내 17개 외국어학원과 제휴를 맺고 일본어교육잡지인 <월간 일본어>의 한국판을 발간했다. 1996년에는 실제 생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시험 NIKKEN의 문제를 일본국서간행회와 공동 개발했다. <중국어저널>도 2001년 창간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행해 오고 있으며 시사중국어학원과 유학부를 개설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 학원은 일본·중국어를 합쳐 12곳이다.

시사일본어사는 외국어교육에 관한 전방위적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교재로 만들기 위해 원고를 보내주는 저자들도 학회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거나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대부분이다. 교재는 학생들을 가까이 접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만들어진다.

"우리 책이 지금까지 대학과 아카데미교재 위주였다면 요즘은 서점판매용 교재를 위주로 출판합니다. 즉, 혼자 공부하는 학생



← 왼쪽부터 오오에, 마에다, 정선영, 김윤정, 그리고 편집장 김은경 씨. 시사일본어사의 일본어교재를 발간하는 편집부 식구들이다. 지금의 시사일본어사는 이들 자리에 있었던 많은 노력으로 그 '내공'을 쌓아왔다.

↑ 시사일본어사의 홈페이지(www.sisabook.com)에는 오프라인 못지않은 교육자료가 풍부하다.

교재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주문도 가능하다.

학생들은 여기서 자체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고 최근부터 실시하는 어학링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들을 위한 것이지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연령층이 확대된 탓이겠죠. '나 홀로 유학'을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돈들여 학원에 다니기 보다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교재도 전에 비해 많이 화려해졌습니다. 그림도 많이 삽입하고요. 아기가 처음 언어를 습득하듯 다른 나라 말을 처음부터 배우는 건데 이왕이면 눈도 즐거운 공부가 돼야죠."

교재에도 '멋'이 있어야 한다. 검은 잉크로 찍은 본문을 보고 밑줄 그어가며 읽는 시대가 아니다. 학생들이 지루함을 모르고 공부하도록 하는 데는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재인가 하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최근에 일러스트레이터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외국어 교재라면 그 나라 분위기가 풍기는 그림이 제격인데, 시사일본어사 편집팀에는 일본인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다. 한국사람보다 '일본 풍'에 맞게 그려내는 탓이다.

직원들도 모두 일본어를 전공했거나 일본에 살다가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이티브 체크와 실제적인 자료를 통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 일본인 직원도 세 명이 있다. 사무실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통용된다.

편집팀의 전무이사인 김조웅 씨는 교편을 잡다 온 재일교포다. 한국어 발음이 서투러 일본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다.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지만 교재편집에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집팀 직원들 수준은 매우 높아요. 일본어에 관해서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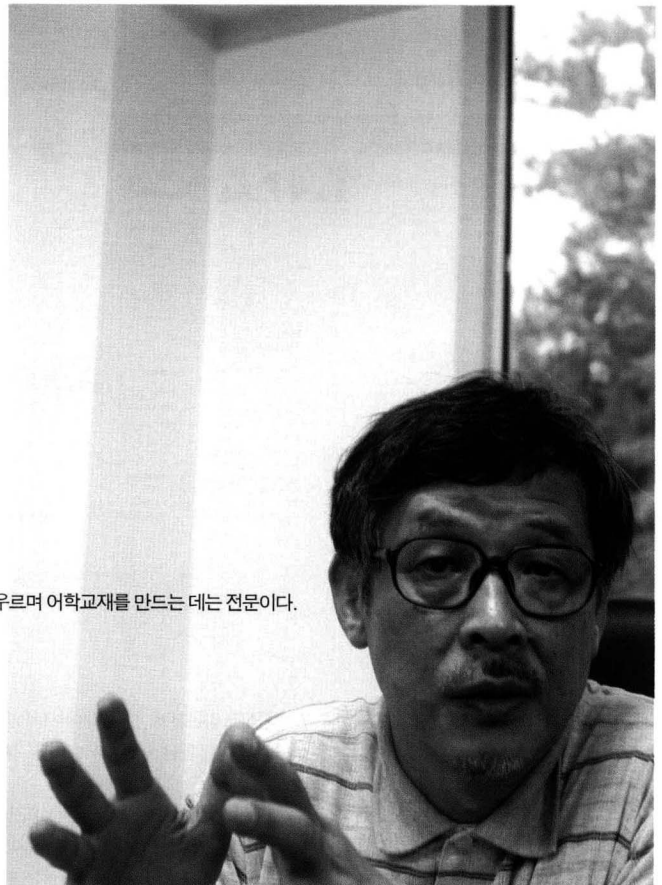
문가로서, 서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검은경 편집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팀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감각있는 인재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재를 만들어냅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교재를 말이죠. 사람도 센스가 있어야 현명하지 않습니까? 김 편집장 말대로 독자들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것은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시사일본어사 편집팀은 바쁜 시기가 있다. 능력시험이 있기 3~4개월 전부터는 특히 그렇다. 요즘이 바로 그런 때다. 기출문제집은 그 종류만 10종이 넘지만 한 권 한 권 꼼꼼한 교정·교열이 필수다. 원고를 레이아웃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형식이 원본과 다르거나 성격에 맞지 않을 때가 가장 안타깝다.

그래도 책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고된 작업 과정을 보상할 만큼 위로가 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질'엔 직원들도 바빠진다. 방학이 끝나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준비도 이제 시작이다.

요즘 주목받는 교재도 시험에 관련된 것들이다. 초급자를 위한 교재는 항상 꾸준히 나가고 주로 찾는 것은 회화와 관련된 교재다. 시험에도 유용하고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www.sisabook.com](http://www.sisabook.com))에는 작문, 회화, 독해, 문법 등 필요한 영역별로 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책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한다. 스튜디오에서 자체 제작한 강의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서점쪽으론 이미 오래전부터 홍보해오고 있지만



시사일본어사 일본어교재 편집부의 전무이사 김조웅 씨.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그는 한국말은 일본어에 비해 서투지만 편집부를 아우르며 어학교재를 만드는 데는 전문가이다.

또 하나의 교육공간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시사일본어사만의 전략이다.

“동영상 제작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면 한가득 칠판과 글씨만 보이고 선생님 얼굴만 비춰주면 학생들이 금방 흥미를 잃거든요. 외국어강의인 만큼 그림카드와 같은 소도구를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초·중급자는 많아도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무엇이든 그렇겠지만 깊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미래를 내다보는 기획력만으로는 성장하기 힘들다. 시사일본어사는 젊은 능력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가졌다. 26년 동안 어학에 대한 열정으로 일본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다.

외국어교재를 내놓는 많은 출판사들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교재를 만든다. 그래서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디자인으로 교재는 매일 새로워진다. 시사일본어사도 그렇다.

세계화 시대에 더없이 중요한 어학교육을 위해, 질 높은 배움을 돕기 위해, 일본어와 중국어 교육분야에서 다른 출판사와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한 시사일본어사의 도움닫기는 거듭된다.

취재 홍이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맨 오른쪽의 강승현 씨는 편집부의 청일점이다. 말은 많지 않아도 오랜기간 함께 해온 듯 어울린 모습이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말은 일에 충실한 각자가 모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재'를 만드는 모드를 이룬다. 사무실 분위기는 항상 점잖다.

· 시사일본어사 편집부가 꼽은 좋은책 베스트 5

- 《NEW TOP JAPANESE1》미키 슌즈에 외 지음 | 박정희 외 옮김 | 246쪽 | 값 12,000원
- 《JPT 점수를 확 올려주는 57지 시험요령 & 30가지 급소포인트》서경원 지음 | 334쪽 | 값 12,000원
- 《더 베스트 일본어회화》김조웅 지음 | 256쪽 | 값 13,000원
- 《新 일본어 첫걸음》동경외대 일본어연구모임 지음 | 240쪽 | 값 8,800원
- 《일본어능력시험 합격노트》송강용미 지음 | 128쪽 | 값 7,800원

